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이서연[†]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Lee, Seoye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tual influence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through longitudinal perspective. Data from the first to third years of the panel of the fir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used among the 2018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longitudinal correla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hich can determine the direction of longitudinal causality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t later tim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high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t the previous point was, the lower the self-esteem or life satisfaction afterward.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e lower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of the parents, and the higher the self-esteem. Recognition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lowere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hereas the cross-delay coefficient from self-esteem to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was not significant. Through these result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erception of adolescenc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as confirmed and efforts to form positive self-esteem and improve life satisfa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부정적 부모양육태도(negative parenting attitude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자아존중감(self-esteem), 청소년(adolescents)

[†] 교신저자: Lee, Seoyeon, 77 Yongbong-ro, Buk-gu, Gwangju,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Education (Education Convergence Hall No. 324),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4, Fax: +82-62-530-2529, E-mail: sy0929@jnu.ac.kr

I. 서론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 점수는 66.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더구나 삶의 만족 점수는 2019년 71.0점, 2017년 74.3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Yonsei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은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은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인해 학업 성취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으나,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은 오히려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Park & Choi, 2016). 생애과정 관점에서 보면, 생애과정 중 특정 시기의 경험은 그 이전 시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떤 생애 단계도 다른 단계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Johnson, Crosnoe, & Elder Jr., 2011). 즉,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그 이후의 삶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 변화와 청소년기 삶의 만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장기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가정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요인이다(Seo & Paik, 2020).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혹은 부모가 방치하거나 처벌적 양육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감소한다(Koh, 20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적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Park, 2015),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경우(Ruiz, Roosa, & Gonzales, 2002)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 즉,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학교 부적응, 비행 등 부정적 행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 등의 긍정적 정서를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지향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를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긍정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분석에 그쳐 특정 시점에서서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행동 양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등 심리적 요인(Shin, Lee, & Kwon, 2015)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keland, Melkevik, Holsen, & Wold, 2012; Gecas & Schwalbe, 1986). 부모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이 상승하여 자아존중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는 경우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Kim & Ku, 2015). 이처럼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은 각각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회 적응이나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중학교 재학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된다. 따라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환경도 변화한다.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규율이 엄격하고,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달라 교사와의 교류가 감소하며,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Chung, 2016; Eccles & Roeser, 2011).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 부모와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주변의 유혹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1999).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초기의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심리

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Shin, Chang, & Park, 2021), 청소년 초기의 부적응 문제는 청소년 중기나 후기까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hin & Hwang, 2006).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인 중학생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기 초기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중 특정 시기의 경험과 정서 상태는 그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주목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각 변인들 사이의 일방향적 관계만을 분석하여 세 변인의 구체적인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은데,

인간의 발달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탐색이 필요하며(Park, Lee, & Suk, 2016), 종단연구는 시간적 인과관계의 탐색이 가능하므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만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려한 상호적 관계인 교차적 인과관계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을 세 시점에서 측정하고 이전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이후 시점의 세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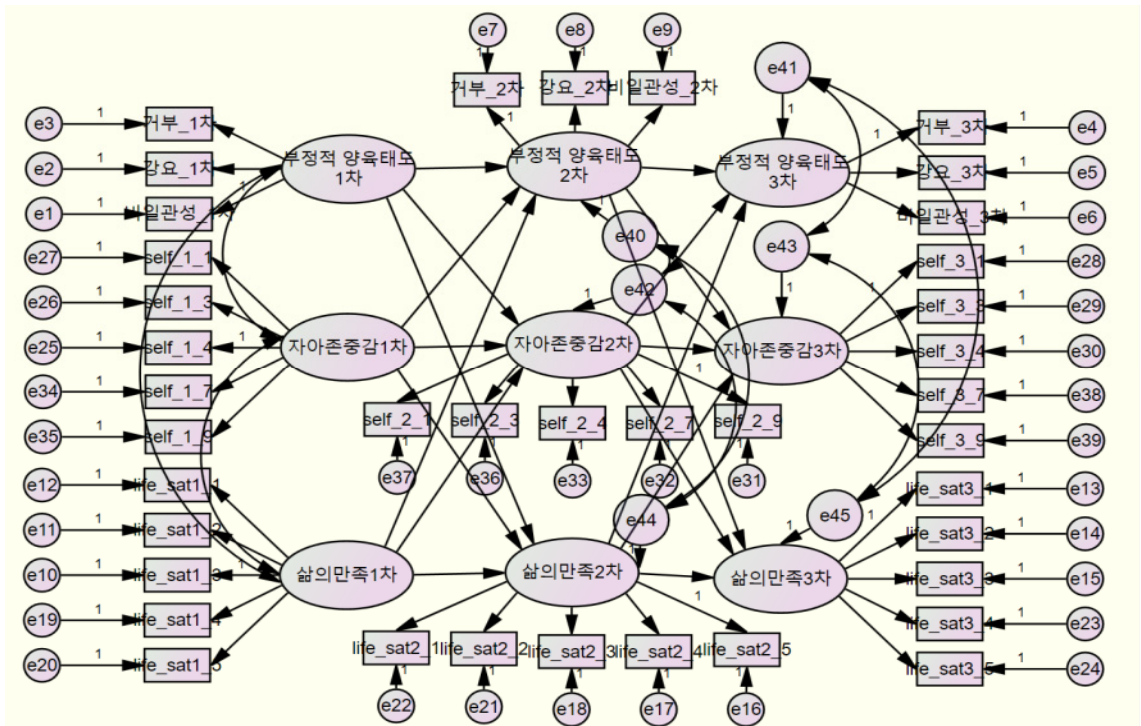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관계를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선행연구분석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외적·내적 행동(Becker, 1964), 자녀의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 및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Ajzen & Fishbein, 1975),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특성(Kim & Cho, 2017)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 자녀의 성격 형성이나 정서 발달, 지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umrind, 1968; Schaefer, 1959). 아울러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양육태도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중 Kim과 Lee(2017)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파스함(애정),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여섯 가지 독립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거부와 강요, 비밀관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Kim과 Lee(2017)의 연구에 의거하여 부정적 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우울감(Lee & Han, 2016)이 높아지거나 사이버 불링(Jung & Jo, 2021; Lee, Lee, & Choi, 2021), 학습 무기력(Yoo, 2022)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녀의 삶의 만족(Hong, 2020; Kim, Park, & An, 2014; Yoo, 2021)을 낮추거나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기도 한다(Park & Lee, 2014).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에게 어떠한 양육태도를 지향하고, 어떠한 양육태도를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삶의 긍정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요인이므로(Hwang & Kim, 2018),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급 전환기에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관련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전환되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논의를 초기에 시작했던 로젠버그(Rosenberg, 1965)는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아 개념의 일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Coopersmith(1981)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 능력 있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Harter(1983)는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평가나 감정,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서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적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Chung & Yuh, 2009),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어 청소년기 이후의 생애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주요 과업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은 여러 가지 기능 수행과 생활에의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달과업이다(Chung & Yuh, 2009; Lee, 2011; Park, 2010).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Diener & Diener, 1995; Heo, Noh, & Choi, 2016).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가족관계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심리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nafo & Plomin, 2006; Patterson, Cohn, & Kao, 1989). 그러나 반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ahm(2008)은 자아존중감이 정확한 자아개념에 기초하는데, 자아개념의 특징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소 부정적이더라도 이를 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Hebner, 1991),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

안녕감, 삶의 질 등이 삶의 만족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Diener, 1994).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나 감정적 측면보다 안정적이라고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개념이기도 하다(Diener, Oishi, & Lucas, 2016). 삶의 만족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Fujita & Diener, 2005). 아울러 청소년기는 인간의 다양한 생애과정 중 하나의 시점으로, 청소년기 이전의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경험이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 과도기적 단계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등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시기에 비해 삶의 만족이 비교적 낮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삶의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Lim, Park, & Kim, 2006). 따라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요인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4.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의 종단적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 간의 일방향적 관계를 살펴보거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재나 지원체계의 결핍 혹은 학대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고(Suk & Ku, 2015), 부모가 강압적이거나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An, 2014). 또한 가족 간 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Park, & Hong, 2006; Yoon & Choi, 2004).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 평가와 관련이 있다. 이는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

이 시도되기도 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1981; Lew, 2013). 아울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은 부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으로, 부모가 적절히 지도하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학대 위주로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Song & Paik, 2016).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부모가 자신을 방치하거나 처벌적인 양육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Park & Noh, 2016).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 Paik,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Cheng & Furnham, 2004; 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III., 2007).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 변인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시도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년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3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2,500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 중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학생 2,325명의 각 년도 자료가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1차년도에서 3차년도의 설문지 중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은 Kim과 Lee(2017)의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적용한 것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거부, 강요, 비밀관성 하위 영역을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척도인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하위 영역을 각각 더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1차년도 .77, 2차년도 .81, 3차년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내용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에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등 긍정적 문항 5개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하위 유형에 대한 예측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 사용이 연구 결과나 실제 현장 적용에 제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Lim & Kim, 2002; Vallacher & Nowak, 2000; Yoo,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2, 3차년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중 1패널 삶의 만족도 문항 5개를 활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주요 질문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등이 있다.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2, 3차년도 .82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통계분석방법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Figur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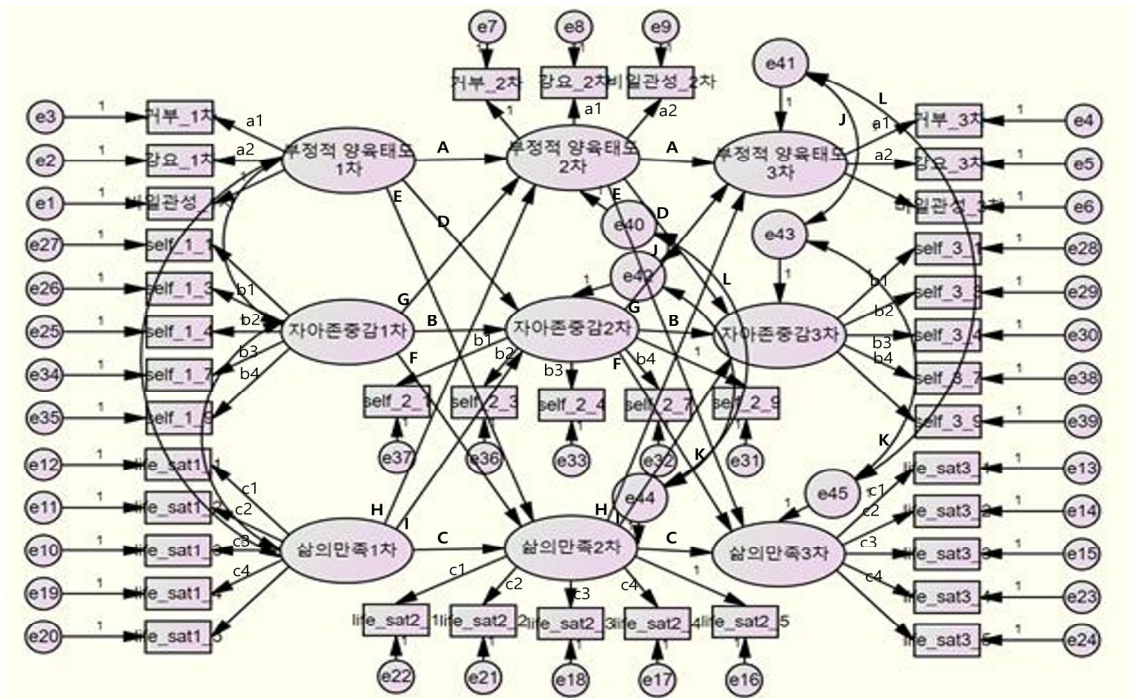


Figure 2. Path diagram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igure 2>에서 잠재변인의 1, 2, 3은 각각 1차, 2차, 3차 측정 시점을 의미하며, a에서 L은 동일성 제약을 위해 설정한 것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에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차례로 확립되어야 한다(Kim, Kim, & Hong, 2009).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 검증을 위해 <Table 1>과 같이 16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모형 중 모형 1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며, 모형 2-4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기본 모형 1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5부터 모형 7까지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4에 추가하여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8부터 모형 13까지는 모형 7에 추가하여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한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14부터 모형 16까지는 모형 13에 추가하여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자료 분석은 AMOS 21.0을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결측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 비교를 위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Hong, 2000).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2, 첨도<4의 기준을 충족하였다(Jong, Malik, & Lee, 2003).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1차년도에의 평균이 1.99점으로 3년 중 가장 낮았고, 2차년도에는 2.00, 3차년도에는 2.02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점차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1차년도 3.10, 2차년도 3.02, 3차년도 2.98로 시간이 점차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1차년도 2.78, 2차년도 2.70, 3차년도 2.63으로 자아존중감과 유사하게 점차 감소하였다.

Table 1.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s

연번	동일성 검증 모형
모형 1	기본 모형
모형 2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자아존중감의 측정 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 b3, b4, b5, b6, b7, b8)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삶의 만족도의 측정 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1, c2, c3, c4)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부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변인 부정적 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잠재변인 부정적 양육태도의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변인 삶의 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3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변인 삶의 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4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5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K)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6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측정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3시점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각년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16개의 모형 중 연구 가설 검토에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에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값 차이($\Delta\chi^2$)를 통해 비교하였고 χ^2 차이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집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값을 사용하여 추가적 모형비교를 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CFI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기저모형인 모형1과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인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6)=21.20$)는 유의수준 .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ΔCFI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3과 모형2의 차이($\Delta\chi^2(df=12)=11.49$)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3)=11.70$)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과 2,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1차년도 (중 1)			2차년도 (중 2)			3차년도 (중 3)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1차년도 (중1)									
부정적 양육태도	1	-.36***	-.34***	.37***	-.25***	-.23***	.28***	-.18***	-.17***
자아존중감	-.36***	1	.70***	-.22***	.44***	.37***	-.19***	.40***	.29***
삶의 만족도	-.34***	.70***	1	-.22***	.38***	.41***	-.16***	.32***	.30***
2차년도 (중2)									
부정적 양육태도	.37***	-.22***	-.22***	1	-.35***	-.30***	.37***	-.21***	-.20***
자아존중감	-.25***	.44***	.38***	-.35***	1	.63***	-.21***	.46***	.35***
삶의 만족도	-.23***	.37***	.41***	-.30***	.63***	1	-.20***	.36***	.43***
3차년도 (중3)									
부정적 양육태도	.28***	-.19***	-.17***	.37***	-.21***	-.20***	1	-.29***	-.26***
자아존중감	-.18***	.40***	.32***	-.21***	.46***	.36***	-.29***	1	.60***
삶의 만족도	-.17***	.29***	.30***	-.20***	.35***	.43***	-.26***	.60***	1
N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2,325
최소값	1	1	1	1	1	1	1	1	1
최대값	4	4	4	4	4	4	4	4	4
평균	1.99	3.10	2.78	2.01	3.02	2.70	2.02	2.98	2.63
표준편차	0.53	0.55	0.60	0.53	0.49	0.55	0.54	0.49	0.55
왜도	0.38	-0.29	-0.15	0.22	-0.02	-0.03	0.29	-0.15	-0.17
첨도	0.11	0.22	0.09	-0.30	0.58	0.24	-0.15	1.01	0.44

*** p<.001

모형4와 3 간의 ΔCFI 값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부정적 양육태도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5와, 측정동일성 모형4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4)=2.9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6과 모형5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5)=14.03$)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형6 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6)=8.28$)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5, 6, 7모두 비교모형간의 ΔCFI 값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8과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모형7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7)=1.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9와 모형8 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8)=0.04$)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0과 모형9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9)=7.47$)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1, 삶의 만족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2,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3은 각각 이전 모형과의 χ^2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4와 경로동일성 모형13 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23)=74.39$)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5와 모형14 간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24)=22.83$),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6과 모형15의 χ^2 값의 차이($\Delta\chi^2(df=1)=22.50$)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모형은 그 전 단계 모형과의 ΔCFI 값이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16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이 1710.64($p < .001$)로 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TLI, CFI, RMSEA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TLI의 값은 .97, CFI 값은 .97로 기준치인 .90 이상이였다. RMSEA 값은 .03(.026-.029)으로 기준치인 .05 이하이므로 본 자료에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201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중1학년 1차년도 ~ 3차년도의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최종 모형의 경로와 경로 계수는 <Table 3> 및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각각 다음 회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시점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42, \beta=.40, p < .00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역시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자아존중감 $\beta=.44, \beta=.39, p < .001$, 삶의 만족 $\beta=.36, \beta=.30,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사이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회귀의 경과에 따라 알아보았다. 그 결과 1차년도(중 1)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2차년도(중 2)의 자아존중감에, 2차년도(중 2)에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3차년도(중 3)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8, \beta=-.08, p < .001$). 1차년도(중 1)에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2차년도(중 2)의 삶의 만족에, 2차년도(중 2)에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3차년도(중 3)에 각각

Table 3. Model fit summary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CI)	$\Delta\chi^2$	Δdf	ΔCFI	
기저 모형1	1509.61***	592	.97	.98	.026(.024-.027)	-	-	-	
측정 동일성	모형2	1530.81***	596	.97	.98	.026(.024-.028)	21.20***	6	.001
	모형3	1542.29***	602	.97	.98	.026(.024-.028)	11.49*	12	0
	모형4	1553.99***	608	.97	.98	.026(.024-.027)	11.70	13	0
	모형5	1556.89***	609	.97	.98	.026(.024-.027)	2.91	14	0
경로 동일성	모형6	1570.92***	610	.97	.98	.026(.024-.028)	14.03***	15	0
	모형7	1579.20***	611	.97	.98	.026(.025-.028)	8.28**	16	0
	모형8	1580.93***	612	.97	.99	.026(.025-.028)	1.73	17	0
	모형9	1580.97***	613	.97	.98	.026(.024-.028)	0.04	18	0
	모형10	1588.64***	614	.97	.98	.026(.025-.028)	7.47*	19	.001
	모형11	1588.73***	615	.97	.98	.026(.025-.028)	0.09	20	0
	모형12	1588.74***	616	.97	.98	.026(.024-.028)	0.00	21	-.001
	모형13	1590.91***	617	.97	.98	.026(.024-.028)	2.18	22	.001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14	1665.31***	618	.96	.98	.027(.025-.029)	74.39***	23	.001
모형15	1688.14***	619	.97	.97	.027(.026-.029)	22.83***	24	.001	
모형16	1710.64***	620	.97	.97	.028(.026-.029)	22.50***	1	.0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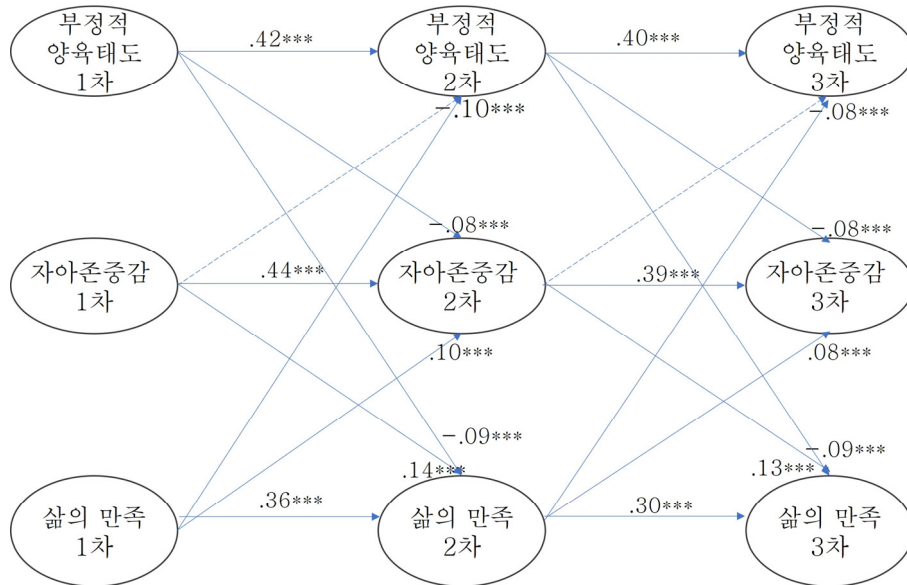


Figure 3. Final path diagram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09$, $\beta=-.09$, $p<.001$). 즉, 청소년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년도(중 1)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2차 년도(중 2)의 자아존중감에,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은 3차 년도(중 3)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0$, $\beta=.08$, $p<.01$). 1차 년도(중 1)의 삶의 만족은 2차 년도(중 2)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은 3차 년도(중 3)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각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0$, $\beta=-.08$, $p<.01$). 즉, 청소년이 삶의 만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년도(중 1)의 자아존중감은 2차 년도(중 2)의 삶의 만족에, 2차 년도(중 2)의 자아존중감은 3차 년도(중 3)의 삶의 만족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4$, $\beta=.13$, $p<.001$),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에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삶의 만족이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각각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인과적 상보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세 변인들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분석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과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

과, 이전 시점의 주요 변인이 각각 이후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후 시점에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나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각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나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을 고취하기 위한 개입을 하고자 할 때 청소년기 초기나 아동기 등 비교적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 시점의 평가와 개입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의 특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만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자아존중감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양육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척도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iener &

Diener, 1995).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통찰하고 삶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력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삶의 평가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Kim & Yun, 201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을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 간에 종단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삶의 만족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삶의 만족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낮게 인식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Lew,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이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역방향으로의 영향, 즉 삶의 만족이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Hong, 2020; Yoo, 2021).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성취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등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내·외현적 결과에 주목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내·외현적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삶의 만족을 높여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반면 자아존중감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영유아기 혹은 그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출 필요성에 대해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에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노력 못지않게 부모로 하여금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초반인 중학교 시기만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기 전체로 확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실제로 Hwang, Choi와 Lim(2016)과 Lee와 Lee (2008)의 연구에서 중학교급의 안정성 계수에 비해 고등학교급의 안정성 계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급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후까지로 확대하여 청소년기 전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하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자아존중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jzen, I., & Fishbein, M. (1975). A bayesian analysis of attribution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82(2), 261-277.
- An, H. S. (2014). An effect of parental abuse experience on self-esteem amo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85-203.
- Baumrind, D. (1968). Authoritarian vs.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Adolescence*, 3(11), 255-272.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Birkeland, M. S., Melkevik, O., Holsen, I., & Wold, B. (2012). Trajectories of global self-esteem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5(1), 43-5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hung, H. H. (2016). Autoregressive cross-lagged analysis of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2), 281-302.
- Chung, M. J., & Yuh, J. I. (2009). Eff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n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self-wor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71-82.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705-71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16).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S. J. Lopez, L. M. Edwards, & S. C. Marques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54-264).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25-241.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 Harter, S.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275-385). New York: Wiley.
- Heo, M. J., Noh, M. W., & Choi, Y. S. (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1(1), 29-49.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ng, S. H., Park, E. H., & Hong, H. Y. (2006).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self-concept : Tests of the effects of parents and pee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241-26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ng, W. (2020).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adolescent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31(2), 291-320.
-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 231-240.
- Hwang, H., & Kim, N. (2018). Understanding parenting style profiles: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chan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3), 679-702.
- Hwang, M. H., Choi, H., & Lim, H. J. (2016). A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195-220.
- Johnson, M. K., Crosnoe, R., & Elder Jr., G. H. (2011). Insights on adolescence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73-280.
- Jung, D., & Jo, H. (2021).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and their Cyberbullying perpetr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3), 809-823.
- Kim, M. G., Kim, J. H., & Hong, S. H. (2009). *Writing a thesis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S., Park, M., & An, J. (2014).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6*(2), 163-182.
- Kim, S., & Yun, K. (2016).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71-296.
- Kim, T., & Lee, 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 Kim, Y. H. (1999). *Study of the influence of parent-juvenile attachment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S., & Cho, H.-I.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itude toward rearing,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3), 529-561.
- Knafo, A., & Plomin, R. (2006). Prosocial behavior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tability and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771-786.
- Koh, H. Y. (2012). *Parenting attitu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G., & Han, S.-Y. (2016). Effects of affection, monitoring and inconsistent parenting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3), 153-172.
- Lee, H. S. (2011). Relation of the self 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99-207.
- Lee, K. E., & Lee, J. R. (2008).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using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ing.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6*(6), 135-141.
- Lee, S. C., Lee, S. K., & Choi, Y. G.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ative nurturing attitude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65*, 93-128.
- Lew, K. H. (2013).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00-2706.
- Lim, M. H., Park, Y. S., & Kim, U. C. (200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specific focus 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1), 53-67.
- Lim, S.-L., & Kim, J. (2002). SOM model(State of mind) of cognitive bala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thought I: In a normal adult samp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125-146.
- Nahm, I. S. (2008). The usefulness of positive self-esteem in prevention on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33*, 135-165.
- Park, B.-K., & Noh, P.-S. (2016).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8), 47-78.
- Park, E. M.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G. H., & Lee, J. M.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4), 997-1013.
- Park, H.-J., Lee, J., & Suk, Y. (2016). A trend analysis of academically resilient students and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ing students' academic resilience in middle school.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4), 193-213.
- Park, S. H., & Choi, E. Y. (2016).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elf-esteem,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Focusing on household income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5, 53-83.
- Park, W. R.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3), 237-257.
- Patterson, C. J., Cohn, D. A., &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21-38.
- Plunkett, S. W., Henry, C. S., Robinson, L. C., Behnke, A., & Falcon III.,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6), 760-772.
- Proctor, C.,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iz, S. Y., Roosa, M. W., & Gonzales, N. A. (2002). Predictors of self-esteem for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youths: A re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1), 70-8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eo, S.-S., & Paik, J. (2020). The effects of positive/negative parenting attitude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Medit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4), 497-512.
- Shin, H., Chang, Y., & Park, C. (2021). Early adolescents' perceived relational support profiles: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21-46.
- Shin, J. Y., & Hwang, H. W. (2006). The stres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selected ecosystemic protective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5-2), 123-154.
- Shin, T. S., Lee, H. J., & Kwon, H. K. (2015).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3(3), 45-64.
- Song, S.-M., & Paik, J. (2016).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27-337.
- Suk, M.-S., & Ku, Y.-G. (2015).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55-74.
- Vallacher, R., & Nowak, A. (2000). Landscapes of self-reflection: Mapping the peaks and valleys of personal assessment. In A. Tesser, R. Felson, & J. Suls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 and identity* (pp. 35-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onsei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Korea children and aAdolescent happiness index*. Seoul: Author.
- Yoo, C. (2017).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A longitudinal study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8(4), 5-31.
- Yoo, K.-H. (2021).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felt by first grader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2), 140-154.
- Yoo, K. H. (202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problems, and academic helplessnes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3), 197-211.
Yoon, J.-E., & Choi, M.-K. (2004). Maternal parenting, mother-

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2(5), 237-25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개인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년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변수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각각 이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시점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후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낮았고,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낮게 인식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반면 자아존중감에서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으로 가는 교차지연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의 부정적 양육태도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9월 1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9월 30일